

# 문화자본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 Roles of Public Libraries in Closing Disparities of Cultural Capital

이 승 민 (Seungmin Lee)\*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분석 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

**요약:** 일반적으로 문화자본은 개인의 문화 활동을 촉진하는 문화적 환경을 통해 형성된다고 알려져 왔다. 공공도서관은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자본의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현재의 진화하는 문화 환경에서도 공공도서관이 여전히 문화자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자본 형성에 있어 공공도서관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기관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은 문화자원에 대한 접근 및 활용, 다양한 문화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양한 유형의 문화자본 형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문화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격차와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제어:** 문화, 문화자본, 문화자원, 공공도서관, 사회적 계층화

**ABSTRACT:**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cultural capital is constructed through cultural environments that facilitate the cultural activities of individuals. Although public libraries foster the cultural environment and support various cultural activities, there is controversy about whether public libraries still affect the formation of cultural capital in the current evolved cultural environment. This research empirically verified the roles of public libraries in the formation of cultural capital by conducting a survey targeting public library users. As a result, public libraries as cultural institutions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opportunities to access and utilize cultural resources and to experience various cultural activities, which are connected to the formation of different types of cultural capital. In addition, public libraries function to close the cultural divide and social disparities by providing equal opportunities to construct cultural capital for community members.

**KEYWORDS:** Culture, Cultural Capital, Cultural Resource, Public Library, Social Stratification

\*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ableman@cau.ac.kr / ISNI 0000 0004 6418 7521)

- 논문접수: 2022년 2월 23일 • 최초심사: 2022년 3월 6일 • 게재확정: 2022년 3월 14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3(1), 81-101, 2022. <http://dx.doi.org/10.16981/kliss.53.1.202203.81>

\* Copyright © 2022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I. 서론

스마트기기의 등장과 같은 정보기술의 발전은 정보를 입수,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자본의 생산, 소비 등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현재의 진화하는 정보환경에서는 많은 정보들이 웹 상에서 혹은 스마트기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지털 형태로 변환되어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정보의 형태와 범위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환경의 변화는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문화가 구현되는 미디어의 형식이 진화하고 있으며, 문화적 경험을 보다 손쉽게 용이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 환경은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자본 가운데 하나인 문화자본의 형성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인의 문화적 능력과 문화자본은 현재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주도적인 문화에 대한 익숙함 및 활용도를 기반으로 생성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의 문화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문화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온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의 기관들은 사람들의 문화자본을 형성하는데 있어 전통적으로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들 가운데 특히 도서관은 다양한 문화 및 문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의 문화자본을 생성하는데 큰 축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정보환경의 급격한 진화로 인해,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방식은 과거와는 다르게 급변하고 있으며, 문화자본의 생성 역시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서관이 전통적으로 수행해 온 오프라인 기반의 문화적 기능들 역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시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도서관이 문화기관으로서의 진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화자본을 형성하는 도서관의 기능에 대한 재고찰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이 문화자본의 형성 및 강화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도서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과 문화자본 형성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정보적, 사회적, 문화적 기관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이 문화자본의 형성을 위해 담당해야 하는 역할을 고찰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문화자본의 개념 및 의의

현재의 사회 환경에서는 정보기술의 발전이 사회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컴퓨터가 사람들의 활동의 상당 부분을 담당할 것이라는 예측이 실제로 구현되고 있다. 하지만 컴퓨터로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과 감성의 영역이 바로 문화이며, 문화는 인간으로서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김영선, 2017, 108).

문화는 상당히 복합적이고 여러 분야에 걸쳐 적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문화는 “하나의 사회 또는 사회적 집단에서 나타나는 예술, 문학, 생활양식, 공동생활, 가치관, 전통, 신념 등의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다(UNESCO, 2001). 이러한 의미를 지닌 문화는 집단학습을 통한 사회화에 의해 형성될 수 있는데, 문화의 학습을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화자원이 필요하게 된다. 문화자원(cultural resource)은 1970년대 초반 미국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로, 특정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유적, 유물, 건축물 등 문화에 대한 역사적 정보를 담고 있는 것들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Indian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2014). 문화자원은 사회 전반에 걸쳐 사람들이 문화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며, 각 개인이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문화적인 능력인 문화자본의 형성으로 이어지게 된다(Goulding, 2008, 235).

일반적으로 문화자본은 1977년 Bourdieu & Passeron이 저서 <Reproduction in Education, Society and Culture>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Bourdieu & Passeron, 1977). 이 책에서는 문화자본을 문화예술이 지닌 상징적 의미와 감성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시각예술, 문학, 음악, 연극 등과 같은 높은 수준에서의 문화 활동 혹은 취향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사회 전반에 걸쳐 형성되는 자본의 범주를 경제적인 것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문화 역시 사회적인 자본의 한 형태로 주장하였으며, 문화자본을 화폐나 재산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지배계급에 의하여 결정된 교환가치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문화자본은 문화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능력으로,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와 교환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교육수준, 가정적 배경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무형의 자본으로 여겨지기도 한다(Bourdieu, 2006; Chan & Goldthorpe, 2007). 이와 유사하게, Goulding(2008, 235)은 문화적 활동을 이해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문화적 역량으로 문화자본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자본은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문화와 자본의 개념이 단순히 결합된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역량 등 복합적인 개념으로 진화해 왔다. 특히 문화가 자본의 한 유형으로 개념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학습이 되고, 그 학습의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적 경험이 축적되는 과정이 필요하다(최명일, 이귀옥, 박조원, 2017, 57). 이와 같이, 문화는 시간적, 경제적인 충족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문화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의 축적을 필요로 하며, 이를 기반으로 문화가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개념화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문화

는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문화 관련 정보, 지식, 경험이 많을수록 추가적인 문화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문화자본의 형성에는 과거의 문화 체험, 문화적 지식, 문화에 대한 관심과 같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서우석, 이호영, 2010, 98).

이외에도 문화자본의 형성에서는 교육수준 및 사회적 관계가 주된 요인으로 언급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서, Bourdieu(1987)는 개인의 문화적 역량이 사회의 교육제도, 부모의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등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문화자본의 보유 여부가 기존의 경제적, 사회적 계층 구분을 재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기술이 급속도로 진화하고 미디어의 형식과 활용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현재의 정보환경에서는 사람들의 문화활동이 개인화된 정보기기의 활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황경호, 권상희, 2011, 4). 이에 문화자본의 형성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 온 기존의 교육 시스템, 부모의 교육수준 혹은 부모로부터 전수되는 경제적 요인이 과거와 같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각 개인의 정보활용능력이나 정보에 대한 접근 능력이 개인의 문화자본 형성에 보다 큰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문화자본의 형성은 문화 혹은 문화자원 자체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문화 관련 정보를 입수, 인지, 활용할 수 있는 환경 혹은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2. 문화자본의 유형

문화자본은 전통적인 자본으로 여겨져 온 인적, 물질, 사회자본과 함께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자본의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다른 유형의 자본들과는 달리 문화자본은 문화의 생산, 소비뿐만 아니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자본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로 인해 문화자본은 그 형성 요인 및 발생하는 형태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여러 연구에서는 문화자본의 유형을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해 왔으나, 가장 대표적인 문화자본의 유형으로는 Bourdieu가 제시한 체화된 문화자본, 객관화된 문화자본, 제도화된 문화자본을 들 수 있다(Bourdieu, 1986).

체화된 문화자본(embodied cultural capital)은 한 개인이 지니고 있는 품위, 몸짓과 외모, 자세와 표정, 식습관, 사용하는 어휘, 교양 등 육체와 정신에 일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존재하는 자본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적 관계 혹은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전수되는 것으로, 각 개인의 신체와 정신에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문화적 성형을 의미한다(Bourdieu, 1986, 47).

객관화된 문화자본(objectified cultural capital)은 문학작품, 미술작품, 문화유적, 악기, 기계나 도구, 건물 등 구체화된 자원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본을 의미한다. 이는 대부분 물리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고 경제적 가치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존재하며, 상속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물리적인 측면 이외에도 객관화된 문화자본은 이들 자원을 인지하고 활용,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 의미적 범위를 확장시켜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형태의 문화자원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이들 형태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기기가 중요한 문화적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디지털 문화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의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기를 객관화된 문화자본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Tondeur et al., 2010).

제도화된 문화자본(institutionalized cultural capital)은 각 개인이 공식적인 교육제도를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문화적 자질이나 능력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본을 의미한다. 자격증 혹은 졸업장 등과 같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증명 가능한 형태의 자원들이 제도화된 문화자본의 범주에 포함된다(Tondeur et al., 2010).

이를 종합해 보면, 문화자본은 궁극적으로 각 개인의 체화된 문화자본인 문화적 지식, 취향, 성향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공식적인 혹은 사회적인 교육 시스템에 기반한 교육적 자질의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미술, 문학, 음악 등과 같은 문화자원들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객관화된 문화자본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Bourdieu가 주장한 문화자본 유형 이외에도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문화자본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자본의 형성과 유지라는 측면에서는 보다 다양한 문화자본의 형태가 제기되어 왔다. Anheier, Gerhards, Romo(1995, 862)는 교육이나 지식의 형태로 개인에게 통합된 상태의 문화자본(incorporated cultural capital)과 문화적, 도덕적, 예술적 가치와 기준을 정의하고 정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상징적 상태의 문화자본(symbolic cultural capital)으로 문화자본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Dimaggio(1982)는 문화자본의 구성 요인 측면에서 문화자본의 형태를 관심(interest), 활동(activity), 정보(information)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문화자본의 유형 혹은 문화자본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측면에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 3. 문화자본의 사회적 함의

문화자본은 사람들의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형성되는 사회적인 자본의 한 형태로 인식되고 있으며, 개인의 문화적 역량을 중심으로 사회구조를 재구성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기능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자본의 개념이 점차 확장되고 중요해지면서, 문화자본의 사회적 기능 및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Holt(1997; 1998)는 각 개인이 보유한 문화자본의 많고 적음에 따라 소비와 여가활동에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Lizardo(2008)는 정보환경의 진화로 인해 객관화된 문화자본의 소유나 획득이 가지는 중요성은

줄어드는 반면 체화된 문화자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문화자본이 적용될 수 있는 사회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문화자본을 형성하는 측면에서 문화자본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주장한 연구도 수행되었는데, 최선태(2006)은 전통적으로 문화자본의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인화된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보기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과거의 공공기관을 통한 문화자본의 이용이 개인화된 기기를 통한 이용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문화자본이 사회구조를 재구성한다는 영향력 측면에서 보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은 사람들의 사회적 위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문화자본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문화자본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는지에 따라 사람들의 사회적인 계층화가 이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황경호, 권상희, 2011, 4).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Bourdieu(1987)는 공식적인 교육을 통해 상징적 재화에 대한 지식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독점하고 있는 지배계급의 문화 선호도가 사회 전체의 문화적 선호도를 지배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문화자본 지표 관련 연구 및 문화자본의 보유 수준이 사회적 계층 재생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하는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DiMaggio(1982)는 사회의 고급 문화에 해당하는 분야로 음악, 미술, 문학을 선정하고, Bourdieu의 문화자본 개념을 기반으로 각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자본을 측정할 수 있는 문화자본 지표를 개발하였다.

DiMaggio의 지표 연구를 시작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문화예술 교육 경험(Achaffenburg & Mass, 1997), 문화 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Roscigno & Ainsworth-Darnell, 1999), 부모의 문화 활동 참여 정도(Kalmijn & Kraaykamp, 1996), 독서활동의 종류 및 정도(De Graaf et al., 2000)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인의 문화자본 보유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DiMaggio가 구분한 문화자본의 측정 지표이자 유형인 관심(interest), 활동(activity), 정보(information) 중 활동 차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문화자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지만,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개인의 문화 활동을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의 문화기관을 통한 것이 아닌 개인의 독립적인 활동으로 제한하였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 4. 도서관과 문화자본

문화자본은 각 개인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충분한 문화적 환경을 보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문화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이 사회구성원들의 문화자본을 형성하는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특히 도서관은 사회적인 격차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기관이자 다양한 문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 또한 수행해 왔다. 이는 UNESCO 공공도서관 선언(IFLA/UNESCO Public Library Manifesto 1994)에 명시된 “교육, 문화, 정보를 지원해 주는 원동력으로서의 도서관”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도서관은 다양한 유형의 문화자원을 포괄적으로 소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도서관은 문화자본을 대규모로 축적하여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문화자본 형성을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서관의 이용은 문화적 참여의 표시임과 동시에 문화자본의 지표로 받아들여져 왔으며, 도서관은 문화자본의 형성, 배포, 운용을 위한 공간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Bourdieu, 1984, 272; Goulding, 2008).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는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도서자료의 대출 및 도서관 이용자들의 독서활동이 개인의 문화자본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주된 논의사항이 되어 왔다. 예를 들면, Sullivan(2001)은 공공도서관 및 도서 대출 방식(객관화된 문화자본)이 언어적인 기술이나 문화적인 지식(체화된 문화자본)을 습득하는데 있어서의 핵심 지표이며, 결국(제도화된 문화자본인) 자격의 획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Jeannotte(2003)은 도서관을 방문해서 책을 읽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원봉사에 보다 많이 참여한다는 것을 실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서관이 문화자본의 형성을 통해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역할 또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과거에는 문화자본과 관련한 도서관의 기능은 도서관 방문 빈도, 이용하는 책의 수,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문화 프로그램 참여 방식 등 오프라인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측면들이 도서관을 통한 문화자본 형성의 주요한 요인이 되어 왔다. 하지만 도서관은 진화하는 사회구조 및 정보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사람들의 문화접근 방식 혹은 정보접근 방식에 따라 도서관의 이용 행태 역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기기 등 개인화 된 정보기기를 이용한 문화 향유의 기회가 늘어나면서 문화자본을 생성하는 도서관의 역할이 상당 부분 웹으로 대체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문화자본 생성에 있어서의 도서관의 역할이 정보기술의 발전 및 보급과 함께 축소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도서관이 실제로 각 개인의 문화자본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문화자본의 형성과 도서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충분하게 수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기관으로서의 도서관 측면에서 문화자본을 재정의하고, 도서관, 특히 공공도서관이 사회구성원들의 문화자본을 형성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변수 설정

본 연구는 문화자본의 유형 가운데 체화된 문화자본, 객관화된 문화자본, 제도화된 문화자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DiMaggio가 구분한 태도, 정보, 활동의 문화자본 유형과 공공도서관 이용과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실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Bourdieu와 DiMaggio의 문화자본 유형을 공공도서관과의 관계 측면에서 재정의하였다.

우선,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문화자원의 활용, 각 개인의 문화자원 보유 및 이를 통한 문화적 경험을 객관화된 문화자본으로 정의하였다. 이 가운데 문화적 경험은 문화예술 관련 활동으로 한정하였으며, 이는 현재 대부분의 문화적 경험이 객관화된 문화자원의 활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제도화된 문화자본은 사람들의 문화 관련 교육 경험 및 공공도서관에서의 문화 프로그램 참여 정도로 정의하였다. 대부분의 문화자본 관련 연구들에서는 각 개인의 교육수준을 핵심적인 변인으로 설정하고 있으나(Bennett, 2006; Massanari & Howard, 2011),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이용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정의하였다.

체화된 문화자본은 여러 가지 사회적, 교육적 요인들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형태 역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DiMaggio가 정의한 태도, 활동, 정보에 기반하여 문화소양, 문화 활동, 문화지식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 2. 설문항목 구성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개인의 문화자본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설문항목을 구성하여 공공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항목은 문화자본의 형성 요인, 문화자본 형성 측면에서의 공공도서관 이용 요인, 인구통계적 특성 등 3개 카테고리의 총 22개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문화자본 형성 요인 및 공공도서관 이용 요인에 대해서는 Likert 5점 척도를 적용하여 공공도서관 이용이 문화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문화자원과 관련한 공공도서관 이용 행태를 확인하고,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각 유형의 문화자본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체화된 문화자본, 객관화된 문화자본, 제도화된 문화자본을 중심으로, 이전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각 유형의 문화자본 형성 요인들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개인의 문화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도서관 이용 요인으로는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



공공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문화자원의 이용,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문화 프로그램 참여 정도, 개인의 문화생활에 있어서의 공공도서관의 중요성 인식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표 1〉 설문항목 구성

설정 변수	문화자본 형성 요인	관련 연구
체화된 문화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활동에 대한 친숙도</li> <li>• 문화 관련 지식의 보유 정도</li> <li>• 문화예술 활동에의 참여 정도</li> <li>• 독서활동 빈도</li> <li>• 문화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li> <li>• 문화예술 활동 경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nheier, Gerhards, Romo (1995)</li> <li>• Bennett (2006)</li> <li>• Bourdieu (1987)</li> <li>• Chan &amp; Goldthorpe (2007)</li> <li>• De Graaf, et al. (2000)</li> </ul>
객관화된 문화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자원 보유 정도</li> <li>• 문화활동 관련 설비 보유</li> <li>• 온라인을 통한 문화활동 정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ourdieu (1987)</li> <li>• Chan &amp; Goldthorpe (2007)</li> <li>• De Graaf, et al. (2000)</li> <li>• Lizardo (2008)</li> </ul>
제도화된 문화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 교육 경험</li> <li>• 문화프로그램 참여 경험</li> <li>• 문화자원 생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ourdieu (1987)</li> <li>• Chan &amp; Goldthorpe (2007)</li> <li>• De Graaf, et al. (2000)</li> <li>• Dimaggio (1982)</li> </ul>
공공도서관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li> <li>• 공공도서관 소장 문화자원 이용</li> <li>• 공공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참여</li> <li>• 문화생활에서의 공공도서관의 중요성 인식</li> </ul>	

이외에도 각 개인의 사회적 특성 혹은 개인이 처한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사람들의 문화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 가족규모, 현 거주지 거주기간 등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사회적 특성들을 인구통계적 변수로 선정하였다.

### 3. 데이터 수집

설문조사 대상은 개인적인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중·고등학생 집단을 제외한 20대 이상 성인으로 설정하였다. 설문조사 지역은 서울 지역으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 서울 지역에서 보다 풍부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문화자본 측면에서의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보다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는 2019년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설문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총 281부를 배포하여 수행하였으며, 이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13부를 제외한 268부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SPSS) 23.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데이터 분석에는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및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의 내적 신뢰도 확보를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측정하였으며, 문화자본

형성, 공공도서관 이용과 관련된 변수 총 16개 항목에 대해 내적 일관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다(Cronbach's alpha = .749).

## IV. 분석 결과

### 1. 인구통계적 분석

설문 참여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설문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166명(61.9%), 여성 102명(38.1%)으로 나타났으며, 연령과 현 거주지 거주기간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 구성은 3인 가구(40.7%, N=109)와 4인 가구(41.4%, N=111)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 졸업자(50.7%, N=136)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2〉 참조).

〈표 2〉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분석

항목	구분	수(N)	비율(%)
성별	남	166	61.9
	여	102	38.1
	계	268	100.0
연령	20대	75	20.8
	30대	74	27.6
	40대	63	23.5
	50대	35	13.1
	60대 이상	20	7.5
	계	268	100.0
교육수준	고졸	10	3.7
	전문학사	34	12.7
	학사	136	50.7
	석사	76	28.4
	박사 이상	12	4.5
	계	268	100.0
소득수준	2,000만원 이하	38	14.2
	2,000만원~4,000만원	82	30.6
	4,000만원~6,000만원	134	50.0
	6,000만원~8,000만원	2	0.7
	8,000만원 이상	12	4.5
	계	268	100.0
가족구성	1인	5	1.9
	2인	24	9.0
	3인	109	40.7
	4인	111	41.4
	5인 이상	19	7.1
	계	268	100.0

항목	구분	수(N)	비율(%)
거주기간	1년 미만	34	12.7
	1년 이상~3년 미만	59	22.0
	3년 이상~5년 미만	58	21.6
	5년 이상~7년 미만	93	34.7
	7년 이상	24	9.0
	계	268	100.0

분석 결과, 성별, 연령, 거주기간은 전체 응답자 사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전체의 50% 정도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가족 단위의 규모는 3인 및 4인 가족이 전체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공공도서관 이용자는 소규모 가족 단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이용자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가족 단위의 이용 또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 2. 공공도서관 이용과 유형별 문화자본 형성

현재 공공도서관은 커뮤니티 구성원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해 주는 정보적, 문화적 기관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람들의 문화자본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각 유형의 문화자본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 가. 체화된 문화자본 형성과 공공도서관 이용

체화된 문화자본은 한 개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습득한 문화자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공공도서관이 어떠한 영향을 미쳐 왔는지, 그리고 향후 각 개인이 체화된 문화자본을 형성하는데 있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우선 공공도서관의 이용과 체화된 문화자본을 형성하는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와 독서활동 빈도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 $r=.180, p<0.01$ ). 또한 공공도서관에서 문화 관련 정보자원을 많이 이용할수록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 보유( $r=.292, p<0.01$ ), 독서활동 빈도( $r=.126, p<0.05$ ), 본인의 삶에 있어서의 문화 활동의 중요성 인식( $r=.185, p<0.01$ ) 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공공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독서활동 빈도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r=.219, p<0.01$ ), 공공도서관이 개인의 문화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할수록 독서활동 빈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281, p<0.01$ ) (<표 3> 참조).

〈표 3〉 공공도서관 이용과 체화된 문화자본 형성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					
		문화활동에 대한 친숙도	문화 관련 지식 정도	문화예술 활동에의 참여 정도	독서활동 빈도	문화 활동 중요성 인식	문화예술 활동 경험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	Pearson 상관	.053	.083	.034	.180**	.023	-.045
	유의확률 (양측)	.384	.177	.575	.003	.709	.461
	N	268	268	268	268	268	268
공공도서관 문화 자원 이용 빈도	Pearson 상관	.096	.292**	.108	.126*	.185**	-.023
	유의확률 (양측)	.115	.000	.077	.040	.002	.712
	N	268	268	268	268	268	268
공공도서관 중요성 인식	Pearson 상관	-.024	-.076	.033	.219**	.036	-.027
	유의확률 (양측)	.693	.217	.586	.000	.552	.663
	N	268	268	268	268	268	268
공공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참여	Pearson 상관	.067	.022	.116	.281**	.077	-.086
	유의확률 (양측)	.271	.725	.059	.000	.209	.158
	N	268	268	268	268	268	268

\*  $p < 0.05$ , \*\*  $p < 0.01$

체화된 문화자본은 형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가정환경, 교육수준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화자본의 형성에 현재의 공공도서관 이용만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에 소장된 문화자원의 이용은 체화된 문화자본을 형성하는 요인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반면 문화활동에 대한 친숙도, 문화예술 활동에의 참여 정도, 문화예술 활동 경험은 공공도서관의 이용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관관계의 인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요인들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개인의 체화된 문화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각 개인의 문화 관련 지식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공도서관에 소장된 문화자원의 이용은 개인의 문화 관련 지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t=5.154, p=.000$ ). 따라서 공공도서관에 소장된 문화자원의 이용은 개인이 문화와 관련된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체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표 4〉 참조).

〈표 4〉 공공도서관의 이용과 문화 지식 정도 사이의 회귀분석

		계수 <sup>a</sup>				t	유의확률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1.773	.478		3.707	.000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	.041	.060	.041	.679	.498	
	공공도서관 문화자원 이용 빈도	.275	.053	.307	5.154	.000	
	공공도서관 중요성 인식	-.197	.076	-.189	-2.580	.010	
	공공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참여	.099	.085	.090	1.159	.247	

a. 종속변수: 문화 관련 지식 정도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개인의 독서활동을 통한 문화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많을수록 개인의 독서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문화자본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2.411, p=.017$ ) (<표 5> 참조).

<표 5> 공공도서관의 이용과 독서활동 사이의 회귀분석

계수 <sup>a</sup>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1.483	.350		4.236	.000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	.105	.044	.141	2.400	.017
	공공도서관 문화자원 이용 빈도	.051	.039	.077	1.310	.191
	공공도서관 중요성 인식	.070	.056	.090	1.254	.211
	공공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참여	.113	.062	.139	1.813	.071

a. 종속변수: 독서활동 빈도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문화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공공도서관에 소장된 문화자원의 이용 빈도는 사람들이 문화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2.913, p=.004$ ). 즉, 공공도서관의 문화자원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개인의 문화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6> 참조).

<표 6> 공공도서관의 이용과 문화 활동의 중요성 인식 사이의 회귀분석

계수 <sup>a</sup>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1.573	.570		2.758	.006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	-.016	.071	-.014	-.230	.819
	공공도서관 문화자원 이용 빈도	.185	.064	.180	2.913	.004
	공공도서관 중요성 인식	-.053	.091	-.044	-.579	.563
	공공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참여	.089	.102	.071	.875	.382

a. 종속변수: 문화 활동의 중요성 인식

이를 종합해 보면, 개인의 문화자본을 형성하는데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져 온 독서활동은 현재의 정보환경에서도 여전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의 이용은 개인의 독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개인의 체화된 문화자본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공공도서관의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사람들은

문화 활동을 수행하는데 공공도서관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도서관은 문화 관련 정보자원의 소장 및 제공을 통해 개인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고 체화된 문화자본의 형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나. 객관화된 문화자본 형성과 공공도서관 이용

객관화된 문화자본의 형성에는 각 개인의 문화적 경험이나 문화자원의 이용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개인의 체화된 문화자본의 형성에는 객관화된 문화자원을 이용하는 개인적인 역량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따라서 다양한 문화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은 객관화된 문화자본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의 이용과 객관화된 문화자본 형성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도서관에 소장된 문화자원의 이용과 개인의 문화자원 보유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r=.139, p<0.05$ ), 공공도서관에 소장된 문화자원 이용은 개인의 객관화된 문화자본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표 7〉 참조).

〈표 7〉 공공도서관 이용과 객관화된 문화자본 형성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		
		문화자원 보유	문화활동 관련 설비 보유	온라인을 통한 문화활동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	Pearson 상관	.053	.016	-.041
	유의확률 (양측)	.390	.798	.504
	N	268	268	268
공공도서관 문화자원 이용 빈도	Pearson 상관	.139*	.029	-.012
	유의확률 (양측)	.023	.637	.839
	N	268	268	268
공공도서관 중요성 인식	Pearson 상관	-.045	.069	-.005
	유의확률 (양측)	.461	.262	.939
	N	268	268	268
공공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참여	Pearson 상관	-.012	.076	.024
	유의확률 (양측)	.843	.217	.696
	N	268	268	268

\*  $p<0.05$ , \*\*  $p<0.01$

상관분석 결과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상관성을 보이는 변수를 대상으로 공공도서관의 문화자원 이용이 객관화된 문화자본의 형성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도서관 소장 문화자원의 이용 빈도는 개인의 문화자원 보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2.306, p=.022$ ). 즉, 공공도서관을 통한

문화자원의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개인적인 문화자원 보유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8〉 참조).

〈표 8〉 공공도서관의 이용과 문화자원 보유 사이의 다중회귀분석

모형		계수 <sup>a</sup>			t	유의확률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B		베타		
1	(상수)	2.404	.643		3.736	.000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	.040	.081	.031	.492	.623
	공공도서관 문화자원 이용 빈도	.165	.072	.144	2.306	.022
	공공도서관 중요성 인식	-.111	.103	-.083	-1.082	.280
	공공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참여	.018	.115	.013	.159	.873

a. 종속변수: 문화자원 보유

문화자원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문화자원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이 필요하며, 문화 관련 지식이 많을수록 문화자원 혹은 문화 관련 정보자원의 보유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공공도서관에 소장된 문화자원을 이용하는 것은 사람들의 문화자원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고 문화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은 사람들과 문화자본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객관화된 문화자본의 형성 요인 대부분은 공공도서관의 이용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 제도화된 문화자본 형성과 공공도서관 이용

제도화된 문화자본은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사회의 교육시스템을 통해 문화 관련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해 왔으며, 현재는 공공도서관 역시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기관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점차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공공도서관의 제도화된 문화자본 형성 기능 또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도서관의 이용과 각 개인의 제도화된 문화자본 형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예술 교육 경험은 공공도서관 이용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문화예술 교육 경험이 많을수록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 $r=.120, p<0.05$ ), 공공도서관의 문화자원 이용 빈도( $r=.148, p<0.01$ ), 문화자원과 관련한 공공도서관의 중요성 인식도( $r=.125, p<0.05$ ), 공공도서관이 개인의 문화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r=.247, p<0.01$ ) 등이 높게 나타났다. 문화자원의 생산과 관련해서는, 공공도서관에서 문화 관련 자원을 많이 이용할수록 문화자원을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211, p<0.01$ ) (〈표 9〉 참조).

〈표 9〉 공공도서관 이용과 제도화된 문화자본 형성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		
		문화예술 교육 경험	문화 프로그램 참여	문화자원 생산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	Pearson 상관	.120*	.077	-.076
	유의확률 (양측)	.049	.207	.218
	N	267	268	268
공공도서관 문화자원 이용 빈도	Pearson 상관	.148*	.115	.211**
	유의확률 (양측)	.015	.060	.001
	N	267	268	268
공공도서관 중요성 인식	Pearson 상관	.125*	.076	.005
	유의확률 (양측)	.042	.215	.938
	N	267	268	268
공공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참여	Pearson 상관	.247**	.075	.002
	유의확률 (양측)	.000	.222	.976
	N	267	268	268

\*  $p < 0.05$ , \*\*  $p < 0.01$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 이용은 개인의 문화 관련 교육 경험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 관련 교육 경험이 많을수록 공공도서관 이용이 많으며 공공도서관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공공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문화자원의 이용이 개인의 문화자원 생산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문화 소비 측면에 집중한 기존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공공도서관의 문화 생산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상관분석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요인들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 이용이 제도화된 문화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도서관에서의 문화자원 이용 빈도는 개인의 문화예술 교육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2.494, p=.013$ ). 즉, 공공도서관에 소장된 문화자원을 많이 이용할수록 개인의 문화예술 교육 경험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문화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공공도서관 이용과 문화 관련 교육 경험 사이의 회귀분석

		계수 <sup>a</sup>			t	유의확률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1.262	.300		4.212	.000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	.061	.037	.090	1.634	.103
	공공도서관 문화자원 이용 빈도	.083	.033	.136	2.494	.013
	공공도서관 중요성 인식	-.012	.048	-.017	-.250	.803
	공공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참여	.054	.053	.073	1.026	.306

a. 종속변수: 문화예술 교육 경험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문화자원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공공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문화자원의 이용은 개인이 문화자원을 생산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t=3.613, p=.000$ ). 즉, 공공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문화자원을 많이 이용할수록 사람들은 공공도서관의 문화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문화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 관련 자원 및 정보의 생산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에서의 문화 관련 정보자원의 소장 및 제공은 사람들의 문화 관련 정보의 소비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문화자원 생산을 고무시킬 수 있는 문화 생산으로서의 역할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11〉 참조).

〈표 11〉 공공도서관 이용과 문화 자원 생산 사이의 회귀분석

모형		계수 <sup>a</sup>			t	유의확률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998	.407		2.449	.015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	-.088	.051	-.107	-1.732	.084
	공공도서관 문화자원 이용 빈도	.164	.045	.222	3.613	.000
	공공도서관 중요성 인식	-.027	.065	-.031	-.411	.682
	공공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참여	-.020	.073	-.023	-.282	.778

a. 종속변수: 문화자원 생산

이상의 분석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공공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화자원의 이용 및 문화 프로그램에의 참여는 개인의 문화자본 형성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화된 문화자본 측면에서 살펴보면, 문화자본의 형성에 전통적으로 큰 영향을 미쳐온 독서활동에는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많을수록 문화 관련된 지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체화된 문화자본의 형성에 있어서는 문화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고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공공도서관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문화 관련 지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의 문화 활동에 있어 공공도서관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결국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각 개인의 삶에 있어 문화의 중요성을 높여주는 기반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의 체화된 문화자본의 형성은 오랜 기간에 걸쳐 습득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이 체화된 문화자본 형성에 단기간 동안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객관화된 문화자본의 형성과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문화자원 및 문화 관련 정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에 소장된 문화자원의 이용은 각 개인이 문화자원을 보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공도서관의 이용은 사람들의 문화자원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고, 공공도서관을 통해 문화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각 개인이 관심 있는 문화자원을 많이 보유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제도화된 문화자본의 형성 측면에서는,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문화 관련 프로그램 참여가 각 개인의 문화 관련 교육에 대한 참여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문화 프로그램은 각 개인의 문화 교육 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다시 공공도서관에 소장된 문화자본의 이용과 연결됨으로써 전체적으로 공공도서관은 개인의 제도화된 문화자본의 형성 및 체화된 문화자본의 형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공공도서관의 문화 프로그램 참여는 지금까지의 문화 소비뿐만 아니라 문화자본의 생산 측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공공도서관은 문화의 소비와 생산 모두를 높일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 V. 논의 및 결론

현재의 정보적, 문화적 환경에서 공공도서관의 이용은 각 유형의 문화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인의 전체적인 문화자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형성되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형성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현재의 공공도서관 이용이 개인의 문화자본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공공도서관의 이용을 통해 개인의 문화 관련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공공도서관이 문화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사람들의 문화자본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제도화된 문화자본은 교육수준과 경제적 수준이 모두 높은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은 개인의 경제적 수준 혹은 학력 수준과는 무관하게 문화자본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도서관은 사람들의 다양한 문화자본 형성에 있어 기존의 요인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자본의 형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기존의 형성 방식을 보완하는 매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가계수입, 교육수준 등과 같은 문화자본 형성의 전통적인 요인들이 공공도서관의 이용을 통해서 보완됨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의 문화적 평등을 추구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결국 공공도서관이 개인의 문화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동시에 사회구성원 사이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여 사회 전반적인 문화자본의 평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문화자본이 사회적 계급을 재생산할 수 있다는 Bourdieu의 문화자본 계층화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화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향후 공공도서관의 문화적 역할을 위한 방향을 제고할 때 이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통적인 문화자본의 세 가지 유형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상호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각각의 유형을 서로 분리시켜 생각할 수는 없으며, 이들 유형이 모두 연결되어야 개인의 문화자본이 전체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공공도서관은 문화자본의 전체적인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이 문화자본의 형성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문화자본은 복합적으로 연결된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 이들 요인을 구축하는 데는 오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차원에서의 문화적, 정보적 환경을 조성하여 사람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공도서관이 이러한 역할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보다 넓게 확산될 필요가 있으며, 공공도서관을 통한 정보의 이용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문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보다 나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김영선 (2017). 문화콘텐츠 허브로서 대학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공연예술학과.
- 서우석, 이호영 (2010). 네트워크화된 문화소비자와 문화자본.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27(1), 94-137.
- 최명일, 이귀옥, 박조원 (2017). 문화 자본이 미술관 체험 만족 및 관람 후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정책논총, 31(2), 54-73. DOI: <https://doi.org/10.16937/jcp.31.2.201708.54>
- 최셋별 (2006). 한국 사회에 문화 자본은 존재하는가?. 문화와 사회, 1, 123-158.
- 황경호, 권상희 (2011). 스마트폰의 진화와 문화자본에 관한 연구. 문화경제연구, 14(2), 3-33.
- Achaffenburg, K. & Maas, I. (1997). Cultural and educational careers: the dynamics of social reprodu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2, 573-587.
- Anheier, H. K., Gerhards, J., & Romo, F. P. (1995). Forms of capital and social structure in cultural fields: examining Bourdieu's social topograph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0(4), 859-903.
- Bennett, T. (2006). Postscript: cultural capital and inequality: refining the policy calculus. *Cultural Trends*, 15(2/3), 239-244. DOI: <https://doi.org/10.1080/09548960600714427>

- Bourdieu, P. (1984).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ment of Taste*. London: Routledge.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Richardson, J. G. (Ed.), Richard, N. (Trans.),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Greenwood, 241-258.
- Bourdieu, P. (1987). What makes a social class? on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existence of groups. *Berkeley Journal of Sociology*, 32, 1-17.
- Bourdieu, P. & Passeron, J. (1977). *Reproduction in Education, Society and Culture*. London: Sage Publications.
- Chan, T. W. & Goldthorpe, J. H. (2007). Social stratification and cultural consumption: the visual arts in England. *Poetics*, 35(2-3), 168-190.  
DOI: <https://doi.org/10.1016/j.poetic.2007.05.002>
- De Graaf, N. D., De Graff, P. M., & Kraaykamp, G. (2000). Parental cultural capital and educational attainment in the Netherlands: a refinement of the cultural capital perspective. *Sociology of Education*, 73(2), 92-111. DOI: <https://doi.org/2673239>
- Dimaggio, P. (1982). Cultural capital and school success: the impact of status cultural participation of the grades of U.S. high school stude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 182-201.
- Goulding, A. (2008). Libraries and cultural capital.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40(4), 235-237. DOI: <https://doi.org/10.1177/0961000608096713>
- Holt, D. B. (1997). Distinction in America? Recovering Bourdieu's theory of tastes from its critics. *Poetics*, 25, 93-120. DOI: [https://doi.org/10.1016/S0304-422X\(97\)00010-7](https://doi.org/10.1016/S0304-422X(97)00010-7)
- Holt, D. B. (1998). Does cultural capital structure American consump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5(1), 1-25. DOI: <https://doi.org/10.1086/209523>
- Indian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2014). *Cultural Resources Manual*. Available: [https://www.in.gov/indot/crm/files/Chapter\\_4-\\_What\\_are\\_Cultural\\_Resources.pdf](https://www.in.gov/indot/crm/files/Chapter_4-_What_are_Cultural_Resources.pdf)
- Jeannotte, M. S. (2003). Singing alone? the contribution of cultural capital to social cohesion and sustainable commun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9(1), 35-49. DOI: <https://doi.org/10.1080/1028663032000089507>
- Kalmijn, M. & Kraaykamp, G. (1996). Race, cultural capital and schooling: an analysis of trends in the United States. *Sociology of Education*, 69, 22-34. DOI: <https://doi.org/2112721>
- Lizardo, O. (2008). The question of culture consumption and stratification revisited.

- Sociologica, 2/2008, 1-32. DOI: 10.2383/27709
- Massanari, A. L. & Howard, P. N. (2011).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omnivorous news diets over three U. S. presidential elections.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 Politics*, 8(2), 177-198. DOI: <https://doi.org/10.1080/19331681.2011.541702>
- Roscigno, V. J. & Ainsworth-Darnell, J. W. (1999). Race and cultural/educational resources: inequality, micro-political processes, and achievement returns. *Sociology of Education*, 72, 158-178. DOI: <https://doi.org/2673227>
- Sullivan, A. (2001). Cultural capital and educational attainment. *Sociology*, 35(4), 893-912. DOI: 10.1017/S0038038501008938
- Tondeur, J., Sinnaeve, I., van Houtte, M., & van Braak, J. (2010). ICT as cultural capital: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the computer-use profile of young people. *New Media & Society*, 13(1), 151-168. DOI: 10.1177/1461444810369245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2001).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Available: [http://www.unesco.org/new/fileadmin/MULTIMEDIA/HQ/CLT/pdf/5\\_Cultural\\_Diversity\\_EN.pdf](http://www.unesco.org/new/fileadmin/MULTIMEDIA/HQ/CLT/pdf/5_Cultural_Diversity_EN.pdf)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i, Myung Il, Lee, Gui Ok, & Park, Jo Won (2017). The influences of cultural capital on the experiential satisfaction of art gallery visits and post-visit intentions. *The Journal of Cultural Policy*, 31(2), 54-73. DOI: <https://doi.org/10.16937/jcp.31.2.201708.54>
- Choi, SetByol (2006). Does cultural capital exist in Korean society? *Culture & Society*, 1, 123-158.
- Hwang, Kyungho & Kwon, Sang Hee (2011). A study on the evolution of smart phone and cultural capital. *Review of Culture and Economy*, 14(2), 3-33.
- Kim, Young Sun (2017). Functions and Roles of University Library as Cultural Contents Hub. Doctoral dissertation, Major in Arts Management,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 Seo, U-Seok & Lee, Ho-Yeong (2010). Networked cultural consumers and cultural capital.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27(1), 94-137.

